

“꿈이 자라는 교실”

부광중, 저녁시간 교실 개방



인천부광중학교가 저녁시간에도 교실을 개방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16일 저녁 8시, 이미 어둠이 내린 운동장에는 대조적으로 환하게 밝혀진 2층 교실은 마치 고3 수험생 교실처럼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부광중학교(교장 조재천)는 저녁시간에도 교실을 개방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꿈이 자라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과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저녁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교실 2칸을 개방하고 있는 ‘꿈이 자라는 교실’에는 매일 60-70명의 학생들이 저녁식사 후 개인 학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 교실에서 학생들은 주로 과제, 독서, 예습, 복습 등 자율적 학습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배우고 있다.

오승호 교감은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거주지가 학교와 가까운 학생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공감해 ‘꿈이 자라는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운영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8일, 처

음 시작할 때에는 6시부터 8시 35분까지 개방하기로 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9시30분까지도 연장·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학생들의 호응이 꽤 높음을 알수 있었다.

3학년 권용호 학생은 “집에서 저녁시간에도 교실을 개방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꿈이 자라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학생들의 호응이 꽤 높음을 알수 있었다.

학부모들도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TV 시청이나 컴퓨터게임 등을 하던 자녀들이 밤늦도록 ‘꿈이 자라는 교실’에서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등 호응을 보내고 있다.

조재천 교장(61)은 “‘꿈이 자라는 교실’ 운영을 통한 학교의 교육가능 강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수용과 실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역 교육학습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등 교육적 성과와 함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전체급식학교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위생교육

은 기존 상상에 따른 식중독 환자 발생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자 식재료 검사 시 주의사항 및 위생적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실시되었다.

맞벌이 부부 부담 던다

초등교 중일 돌봄교실 본격 운영

교육형	2009 중일 돌봄 교실 운영교	학급수
남부	용평(1), 서동(1), 송월(1), 운서(1)	4
북부	개동(1), 마곡(1), 삼산(1), 화정(1)	4
동부	중앙(1), 평도(1), 구월(1), 신월(1)	4
서부	경서(1), 신석(1)	2
강화	길상(2), 해면(1)	3

중일 돌봄 교실 운영교 현황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초등 교육 교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벌이·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16개교 17학급에서 중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16일 밝혔다.

중일 돌봄교실은 일과 시간 이

후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3학년 위주로 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운영프로그램은 학교 실정에 맞게 맞춤형·선택형으로 구성되되 보호(휴식, 식사, 수면 등), 인성지

도, 교과학습지도, 놀이 활동 등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알맞게 편성·운영한다.

또한 중일 돌봄교실은 운영 가능한 전용 교실 확보와 기자재 및 자료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교육청에서 학급 당 각 1명씩 보육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에 실정에 맞게 6월부터 학습 및 보육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은 “중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과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에서 생명을 만나요

북부교육청 신하 초등학교 중 4개 초등학교(개원초, 동안초, 청천초, 부평남초)에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월 13일 토요일에 논생물 생태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천생활협동조합의 전문 강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4개 초등학교가 연합으로 진행한 이번 강화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려는 기회를 주었다.

북부교육청 신하 초등학교 중 4개 초등학교(개원초, 동안초, 청천초, 부평남초)에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월 13일 토요일에 논생물 생태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천생활협동조합의 전문 강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4개 초등학교가 연합으로 진행한 이번 강화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려는 기회를 주었다.

제8회 동부 특수학급 연합캠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진석)은 지난 17일~18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동부교육청이 주최하고 동부특수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학습한 교육과정을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가 활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학교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게 되고,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발휘하여 장애 학생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 등 약 35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 활동은 올 해로 8회째 행사를 거듭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는 기본 질서 속에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캠프로 거듭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동부특수교육연구회 이은숙 회장(신화초 교사)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함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경험의 폭을 넓혀 일상생활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교육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가정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자주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나는 국악 시간 기다려주세요

인천한길초, 국악전문강사 공개수업



한길초등학교의 국악교실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한길초등학교(교장 박승수)는 17일 6학년 1반 교실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 경인교육대학 김순제 교수와 한국국악협회 정원호 이사 및 학교장, 교감, 교사들이 참관 하는데 가운데 국악강사 공개수업이 열렸다.

공개수업에는 우리 민요 등 당기타령을 유이다 국악강사의 선창에 이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가사를 새롭게 꾸며 넣어 신명나게 노래를 이어서 불렀다. 학생들은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시합에 대한 생각을 가사로 담았으며, 우리 전통문화인 도깨비와 놀이 등을 가사로 담아 노래를 불렀다.

수업을 참관한 김순제 문화재 전문위원은 “수업이 신명나

고 우리국악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수업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줄 것”을 주문했으며 “수업모습은 국악전문강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후 6학년 한 어린이는 “선생님의 장구 장단에 맞춰 신나게 노래 부르는 국악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 음악이 이렇게 신나게 불렀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한편, 한길초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악 감상품제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 지회와 지원한 국악전문강사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국악전문강사의 담당교사가 팀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정중, 새터민 이해교육 실시

석정중학교(교장 김영홍)에서는 6월 15일(월) 6교시에 ‘통일시대 남북문화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 윤나나 강사와 새터민 학생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순회 남북문화 및 새터민 청소년 이해교육에 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뜻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비율, 탈북학생 재학생 등 자료를 시청하였으며, 북한의 공식 명칭 및 북한 문화 상식에 관한 내용 등도 O, X 퀴즈로 학생들과 알아 보았다.

또한, ‘내가 만약 개성으로 전학 간다면’이란 가상 주제로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플래시 애니

메이션으로 보면서 북한학생들도 우리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짚잡았다.

2007년도에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하게 되었다는 한 새터민 학생은 북한에서의 체험담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거부감도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남북한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요즘의 한반도 실정에서 진정한 통일은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알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다.

김영 기자

kmv@eduyonhap.com

꼭 미쁘다고 급하다고 아직도 아무 곳에서도 효과없는 광고를 하고 계십니까?

에드블렌

에드블렌의 장점은... (text continues)

에드블렌은... (text continues)

2009-2009년도 국제 로타리 3690지구 부천서경 로타리클럽

꿈을 현실로

2008-09 R Theme "Make Dreams Real"

부천서경 로타리클럽

443-4443

이원식세무회계사무소

사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이원식 세무회계사무소

TEL : 0325-45-0062 FAX : 0325-45-0091